

# 남구, '통합돌봄 서비스' 두 달 만에 370여명 이용

## 4월부터 본격 서비스 제공 20대부터 어르신까지 다양

광주 남구 주민들 가운데 보살핌과 도움이 절박한 이들이 '광주+ 으뜸호 남구 통합돌봄 서비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4일 남구에 따르면 광주+ 으뜸호 남구 통합돌봄 서비스는 보살핌과 돌봄이 필요할 때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남구는 지난 4월부터 빈틈없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가사 지원을 비롯해 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편의·일시보호 등 7개 공통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인 퇴원 1인가구 재택 돌봄 및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달간 으뜸호 남구 통합돌봄 서비스의 문을 두드린 인원은 37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구는 서비스 지원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청자의 상황을 살핀 뒤 328건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던 20대 청년은 홀로 사는 중 교통사고로 한쪽 팔이 절단되고 다리에 철심까지 심은 상태여서 음식 조리 및 설거지 등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이 청년은 라면이나 간편식으로 끼니

를 때우던 중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영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봉선2동에 거주하는 어르신 부부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할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 할머니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족간병을 해 왔으나, 최근 허리 협착 수술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방문 진료와 가사지원, 주거편의 등의 서비스를 요청해 통합돌봄을 지원받고 있다. 이밖에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교 한 학생은 아버지가 퇴근하는 오후 11시까지

홀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소아 우울증 및 결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돌봄은 어린이 및 어르신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관내 주민 중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 지원 요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관내 주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제9회 서구청장배 생활체육 야구대회 광주 서구가 지난 3일 덕흥야구장에서 개최한 제9회 서구청장배 생활체육 야구대회 개회식에 6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 북구, 초·중·고 학교장 간담회 개최

지자체-교육기관, 상생발전 도모  
북구 북구는 5일부터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장단 50여 명을 초청해 '관학 상생발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추진한다. 5일에는 초등학교 교장단·8일에는 중·고·특수학교 교장단과 만남을 갖고 관학 협력사업, 학교 건의 사항, 교육 현장 애로사항 등 지역사회와 광주교육 여건 개

선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다. 북구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나눔주장 사업, 교복나눔 사업, 테마별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학습 등 다양한 협력사업에 대해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과 교류의 시간도 갖는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성현 기자

## 동구, '충장22' 개관 3주년 맞아 비전 선포

8일 패션쇼·난타 등 문화공연 "일하고 머무르는 장소 될 것"  
복합문화공간 '충장22'가 개관 3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를 마련한다. 충장22는 간장 공장 건물을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는 레지던스로 바꿔 개관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다. 오는 8일 개그맨 전유성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판소리 김향수 명창과 영원한 관객 정용주 공연을 비롯해 패션쇼, 설장구, 창작무용, 난타 공연, 판굿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 공예 플리마켓, 어반 스케치, 청년미술제 등의 부대행사가 열린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충장22 새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사)대동문화재단이 시민문화마당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비전 선포식이 열린다. 대동문화재단은 원도심 충장로의 발전을 견인하는 허브 역할을 해온 충장22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상열 (사)대동문화재단 대표는 "지난날 화려했던 충장로4·5가의 명성을 되찾는 거점시설로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인들이 머물며 창작하는 코워킹 코리빙(Co-working, Co-living)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쌓아온 문화단체의 노하우를 접목해 복합문화 레지던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은 "문화예술의 중심에 있던 충장로의 가치를 되찾고 지역 작가들과 크리에이터들의 창작공간으로서 충장22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앞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의거리, 충장22를 동구 문화발전의 3대 축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송민섭 기자

## 광산구, 1인 청년지원 '나 잇수다' 참여자 모집

정서적 안정·건강한 생활 지원  
광주 광산구는 청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나 잇수다' 참여 청년을 5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광산구 내에 거주하는 만19~39세 1인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우리집 넓히기 공간 정리 △건강 체크 △마음 두드림 심리검사 세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자에게 정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체

성분 검사를 진행한다. 또 심리 검사를 한 뒤 1:1 해석 상담을 통해 강점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문의는 광산구 누리집 또는 시민경제과 청년활력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홀로 사는 청년이 자신을 알아가고, 이해하며 정서적 안정을 얻고 꿈을 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문암(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